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56664

2012년 2월
석사학위 논문

夏目漱石(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연구

-『坊っちゃん』을 통해 본 소세키 교육관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일 본 학 과
김 승 연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교육관연구

- 『坊っちゃん』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f education in Natsume Soseki
-focusing on Soseki's ideal education through 『Botshang』-

2012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일 본 학 과

김 승 연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교육관연구

-『坊っちゃん』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영 석

이 논문을 문학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일 본 학 과

김 승 연

金昇蓮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희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인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영석 (인)

2011년　11월

朝鮮大學敎 大學院

目　　次

ABSTRACT ····· iii

Ⅰ. 序　論 ····· 1

Ⅱ. 明治時代의 시대적 배경 및 소세키의 교육관 ····· 4

1. 明治時代의 시대적 배경 ····· 4

2.「중학개량책(中学改良策)」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 ····· 6

3.「우견수칙(愚見数則)」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 ····· 12

Ⅲ. 『坊っちゃん』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 ····· 17

1. '도련님'의 성격 ····· 17

2. '도련님'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 ····· 23

3. 그 외 인물들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 ····· 29

Ⅳ. 結　論 ····· 37

참고문헌 ····· 40

ABSTRACT

A study of education in Natsume Soseki
- focusing on Soseki´s ideal education through 『Botshang』 -

KIM SEUNG YEUN
Advisor : Prof. Cho, Young-suk, Ph.D.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Japan logistics. modern literary father called natsume is a novelist and critic, at the same time, it is also the English scholars. 1906 announced Japan's leading short story work young gentleman who is ignorant of the world. 『坊っちゃん』stubborn character is that kinds of growth novel to live this world, learn his way around especially He was neglected by his family and this novel find to himself by caring housekeeper.

This work is not fancy and make feel sad blandness characteristic that japan culture representative novel.

Young gentleman, the protagonist of the book is straight definition and travesty spirit, humor scored concise and honest and explicitly portraying human limits.

In addition, characters who makes the nickname, is familiar to readers give some strong image.

A writer Soseki become known to public. not only writer but also lector and teacher who live in life about educator. A master's thesis consider about Soseki's novel appeared in educator who live in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and it is try to make research that reflected in the novel by writer's own.

In addition, it research that Soseki's educational ideas and ethics are based on human education and modern school appearance. also it showed to well novel which live in teachers education go with the times.

Ⅰ. 序　論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 이하 소세키로 표기함)[1]는 일본근대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동서고금의 해박한 교양을 바탕으로 둔 그의 문학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소세키의 위치는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확고하고 대단하다.

조영석은 "우리나라 근대문학의 개척자인 이광수와 염상섭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일본문학자 가운데서도 소세키의 문학에 심취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 근대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루쉰이 의학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갔다가 소세키의 영향을 받고 문학으로 진로를 전환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소세키의 문학사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2]라고 평가하고 있다.

소세키의 문학 세계는 일본 사회의 급속히 근대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의 모순과 인간의 삶과 내면을 예리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어 오늘날에도 그의 작품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그는 1893년 도쿄제국대학 (東京帝國大學)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1895년 시코쿠(四国) 마쓰야마(松山)의 중학교에 영어교사로 부임했다. 그곳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坊っちゃん』(작품명 『』표기, 작중인물명은 ''으로 표기함) 이 쓰여 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음해인 1896년 소세키는 쿠마모토 제5고등학교(熊本第5高等學校)에 전임한 후 1900년9월부터 만 2년간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다녀왔다.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고 귀국한 소세키는 도쿄 제1고등학교와 도쿄 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했다.

이후, 소세키는 1905년 잡지『호토토기스(ホトトギス)』에『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를 발표해서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작가로서 문단에 데뷔하게 된다. 그 다음해인 1906년 『도련님』을 발표 해 현재까지도 그의 많은 소설 가운데에서도 가장 폭넓게 읽혀지고 있는 인기소설로 자리 잡고 있다. [3]

---

1)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나쓰메(夏目)는姓이고 소세키(漱石:돌에 입가심하고 물흐름에 베개를 한 나라는 것으로 괴짜라는 의미이다.)라는 이름은 필명(筆名)이다, 즉, 소세키(漱石)라는 것은 소설가의 이름인 것이고, 본명은 나쓰메 긴노스케 (夏目金之助)다.

2) 조영석, 『나쓰메 소세키 한눈팔기』, 문학동네, 2011, p.280

3) 岩波홈페이지(http://www.iwanami.co.jp/hensyu/bun/mametisiki.html)에 들어가 보면 岩波文

『도련님』은 주인공을 비롯한 '야마아라시(山嵐)'등 작중인물을 통해서 당시의 교육계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이지 시대 교육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좋은 소설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정의감 넘치는 언행과 작중인물들의 적나라한 언행을 작자가 유머러스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그의 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소세키가 태어난 시기는 문명개화(文明開化)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일본 역사의 혼란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그의 자신의 문학세계를 통해 문명개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시종일관 견지하게 만들었다.

본고(本稿)에서 다룰 『도련님』도 明治維新 이후 일본사회에 만연한 황금만능주의 풍조와 입신출세 지향으로 인해 초래한 일본인들의 왜곡된 윤리와 도덕을 비판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특히 '도련님'은 무모하고도 통쾌한 언행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시종일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소설이다. 소세키가 이 작품을 통해 그리고자 했던 것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을 소재로 하여 당시 교육자들의 이중적인 모습과 부조리한 사회의 이면(裏面)을 폭로하여 일본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작자의 염원이 담긴 소설이다. 학교소설인 『도련님』의 작중 인물들을 통해 본 메이지 시대의 실상을 살펴보는 것은 당시 일본인들의 가치관과 의식세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소세키의 교육사상이 주인공 '도련님'과 작중 인물들을 통해서 작자의 교육관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를 '도련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론1 에서는 메이지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중학개량책」과 「우견수칙」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을 고찰해 본다. 본론2 에서는 작품 속 '도련님'의 성격과 '도련님'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 그리고 그 외 인물들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을 고찰해 본다.

庫編輯部 소식란을 통해 1927년 7월岩波文庫가 간행된 이후, 현재 (2006년12월)까지 5400種가운데 『坊っちゃん』이 1,358,000部가 판매되어 베스트셀러2位에 위차하고 있다. 그 외 소세키의 작품 중 『こころ(마음)』은 1,237,000部로 5位에 기록하고 근대 문학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본고에서의 인용한 『도련님』의 텍스트로는 講談社文庫(2004年)를 채택하였으며, 작품에서의 인용에 대해서는 논자가 번역하였고, 끝에 페이지 수를 밝혔다.

Ⅱ. 明治時代의 시대적 배경 및 소세키의 교육관

1. 明治時代의 시대적 배경

메이지시대는 낡은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학제의 반포, 페번치현(廢藩置県)[4], 태양력의 채용 등 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안감힘을 다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대신(右大臣)이었던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를 전권대사로 하는 대규모 사절단 등이 구미(歐美) 여러 나라에 파견되었다. 이는 고대국가 성립기에 순환하여 파견되었던 견수사나 헤이안(平安)시대 중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파견된 견당사의 대륙문화를 수립하는 같은 맥락으로 구미 선진국으로부터 새로운 제도·기술·지식·등의 열성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메이지 정부의 과제는, 구미열강(歐美列强)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독립국가로서 자립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부국강병(富國强兵)에 부응 한 식산흥업(殖産興業)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성급한 개혁 추진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부담은 크게 증대하고 사회적 혼란과 국민 각층으로부터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 근대화의 실상에 대해 소세키는 영국 유학 중에 쓴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일본은 삼십년 전에 깨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반쯤 친 종소리에 갑자기 벌떡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깨어난 것은 정말로 깨어난 것이 아니고, 거듭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서양에서 흡수하기에 급급하여 소화할 틈도 없는 것이다. 문학이고, 정치고, 상업이고 모두 그러하다. 일본은 정말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
> 日本は三十年前に覚めたりという。しかれとも半鐘の声で急に飛び起きたるなり。その覚めたるは本当の覚めたるにあらず、狼狽しつつあるなり。ただ西洋から吸収するに急にして消化する暇なきなり。文学も政治も商業も皆然らん。日本は真に目が醒めねばだめだ。
> (1901년 3월 16일 (土))[5]

---

4) 1871년 메이지 신정부가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국의 번(番)을 폐지하고, 현(県)을 설치한 행적 개혁을 말한다.

일본 정부의 근대화 추진 정책은 교육정책에 잘 반영 되어, 정책의 일환으로 채택한 학제(1872년)는 서양의 학제를 모델로 하였다. 당시의 교육이념은 1879년 천황은 교학성지(教學聖旨)에 나타나 있듯이 仁義, 忠孝의 유교의 가르침을 교육이념으로 삼았다. 더 나아가서 일본정부는 1885년 대일본제국헌법 및 황실전범(皇室典範)의 제정과 1890년 교육칙어(教育勅語)의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절대주의적 입헌군주체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삼았다.

1886년, 정부는 「小學校 祝日大祭日 儀式規程」을 제정하였다. 이의 보급에 가장 큰 역할을 짊어진 것은 소학교였고, 축제일의식(祝祭日儀式)을 정점으로 수신(修身), 국어, 역사, 창가 등의 각 교과를 통해 일상적으로 교육칙어의 정신을 철저하게 교육 시켰다.

교육의 목적을 '입신(立身)을 기본'으로 두고 ' 그 자산을 경영하여 생업을 번창시킨다'는데 의의를 갖고 , 개인의 완성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학(實學)'을 높이 평가하였다.

새로운 학제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신정부는 의무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종래 무사계급이상 특권계급의 독점물 이였던 봉건적 차별 교육을 폐지하고 사민평등과 기회균등을 목표로 한 새로운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였다.

메이지 유신 직전의 일본은 교육방법 일람의 데라코야(寺子屋)로 최고의 취학률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1872년 프랑스와 독일 등 서구나라의 학제를 모델로 하여 전국을 8개의 대 학구(大学区)로 나누고, 각 대 학구를 32 중학구(中学区), 1중학구를 210 소학구(小學区)로 나누어 인구 1/600으로 초등학교를 개설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한 피라밋형의 학구제가 그 특징이며, 각 부현(府県)에는 국립중학교를 설치하는 등 전국에 많은 학교를 세웠다.

새로운 학제를 만든 3년 후, 1875년에는 24,225개의 소학교가 설립되었지만, 학교의 경비는 자비 부담의 원칙으로 하였다. 교육의 수강자인 국민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표방하여, 학비와 의식비용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면을 부정하였다.

---

5) 夏目漱石, 『漱石全集第十七券』,岩波書店 , 1995, p.66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학제의 반포는 신정부에 의해 교육정책이 국가로부터의 개명정책(開明政策)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메이지 시대의 교육정책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충군애국의 정신을 고양하고 부국강병을 통한 강력한 국가건설에 필요한 인재양성이었고 그 일환으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유학을 보냄으로서, 서양의 교육정책을 적극 수용하는데 있었다.

메이지 정부는 서구화 정책을 수렵해 교육에 모든 힘을 쏟아서, 교육에 대한 노력과 투자가 일본 국민들에게 의무교육을 시킴으로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로, 당시 신문보급과 일본 근대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후 독특한 '학력중심사회'를 만드는데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국가주의를 지향하여, 1890년에는 천황의 이름으로 일본의 교육방침을 나타낸 교육칙어가 반포되어 1945년까지 일본교육의 기틀로 자리 잡았다.

일본 정부는 자유민권운동의 위기를 느끼고 직접탄압과 자유민권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교육정책을 인의충효(仁義忠孝)를 중심으로 한 덕육교육에 더욱 강화해 나갔다. 부국강병과 천황중심의 국가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정책은 오늘날의 교육과 비교해 볼 때,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중요시 하는 오늘날의 교육과는 달리 메이지 시대의 교육정책은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입식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2. 「중학개량책」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

작가 이전의 소세키의 교육관을 살펴 보기위해 「중학개량책」과 「우견수칙」을 통해 살펴본다.

먼저 1893년 그가 대학 2학년 때에 교육학 과제논문으로 발표했던 「중학개량책」을 살펴 본다. 이「중학개량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서론에서는 중학교육의 목적과 의의를 서술, 제2장에서는 유신이후의 중학교 연혁에 관한 개괄, 제3장에서는 중학개량책을 여러 측면 에서 논하는 동시에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중학개량책」의 서두에서 메이지유신 이후의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서구 여러 나라와 동등한 지위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서둘러 받아들인 결과, 소세키는 "조상 대대로 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기운을 점점 잃고 겉모습은 비대해진 불구자가 되었다."[6]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젊은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쓴 논문이라고는 과히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당시의 교육정책과 실상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인 그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다.

> 일본 미래의 운명은 실로 이 아이들의 손안에 달려 있고, 조상 대대로 하나로의 핏줄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일본을 좌우할 인물을 양성시켜 후대에 물려주는 것, 이보다 더한 공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눈앞에 보이는 폐단을 버리는 것 외에 달리 국운을 만회 할 방책은 없다.
>
> 日本未来の運命は実に比子弟の中にあり,万代一糸の美国を左右する人物を製造して之を後世に譲らん事之に過ぎたる偉功はあらじ況して目下の弊之を捨てて他に国命を挽回するの策はなき[7]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세키는 독립된 국가로서의 확고한 유지를 위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아이들을 교육하고 일본인 고유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덧붙여서 인재양성과 눈앞에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를 넘어선 행위는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원래부터 국가를 위해서 인간을 교육한다는 것은 이치상 감탄할 만한 의론이 아니며, 이미 '국가를 위해'서 라는 목적이 있는 이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든, 명예를 사기 위해서든 , 욕망을 이루어 마음대로 해보기 위해서든 간에 거기에는 고하의 차별이 있을지언정 교육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갖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론상으로 말하자면 교육은 단지 교육을 받는 당사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 고유의 재능과 능력을 계발하고 그 타고난 덕성을 함양하는 것에 불과하다.
>
> もとより国家のために人間を教育するということは理窟上感心すべき議論にあらず,既に'国家のために 'といふ目的のある以上はお金を得る為にといふも, 名誉を買う為にといふも,

---

6) 夏目漱石,『漱石全集第二十六巻』, 岩波書店 , 1995, p37
7) 上掲書 p.38

欲望を成してわがままして見るためだ間にそこには高下の差別こそあれ其の教育以外に他の目的を持つ点においては少しも違うところがない.理論上に言わば教育はただ教育を受ける当事者だけのためにすることで,その固有の才能と能力を啓発してその生まれつきの徳性を涵養するに過ぎず。8)

소세키의 교육관은 다만 교육을 받는 당사자를 위한 것이며, 국가를 위해서 인간을 교육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즉, 인간으로서 교육의 자격을 훌륭하게 해주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한다는 그의 교육관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교육목적이나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육학자적인 놀라운 식견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9)

특히, 소세키가 주목한 것은 중학교 교육이 국가의 지주가 되는 인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며, 그 기간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시기이며, 미래의 목적, 생산의 성질, 지덕 등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 2장에서는 1872년 새로운 학제 이후, 1886년의 학교령이 수립되기 까지의 중학교 연혁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고등중학교 교육의 이상적인 방향을 대학과 보통 중학교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두고 있다.

제 3장에서는 2장까지의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개량책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사의 개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세키는 “ 당시의 중학교 교사는 아주 적은 수의 학사와 고등사범학교의 졸업생을 빼면 학식이 천박한 유랑자이며 학사로서 중학교 교원인 사람은 학식이 있지만 교수법이 연마되어 있지 않고 ,고등사범학교 졸업생은 수업방법에는 정통하지만 학식에는 부족함이 있다.”10)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의 중학교 교사에게는 어디에서 수학을 했는지 내력도 모르는 자가 많고, 약간의 학사 및 고등사범학교를 빼면, 학식 천박한 유령자가 많다. 이들 무리에서 맡겨진 장래 일본의 활력의 중심이 되어야 할 소년에게 있어서는 해만 있지 득은 없다. 가령 이익이 있다고 해도 5년의 배움은 10년에 되어서야 겨우 이르고, 10년의 업은 15년이 되어서 비로소 성

8) 上掲書 pp.38
9) 김대성, 『夏目漱石의 教育觀 研究 : 도련님, 중학개량책, 우견수칙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p.45 인용
10) 前掲書, pp.56

취될 것이다. 학사로서 중등교원인 자는 학식이 있어도 교수법에는 익숙지 않고, 고등 사범학교 졸업생은 교수법은 세밀하지만, 학식이 부족하다.

当今尋中学校の教師には何処にて修業したるや性も知らぬ者多く僅かの学士及び高等師範学校卒業生を除けば余は学識浅薄なる流浪者多し是等の輩に托するに後來日本元気の中心ともなるべき少年を以てするは害あって益なし仮令ひ益あるとも五年の稽古は十年にして漸くなり十年の業は十五年にして始めて成就せん加之学士にせて中学校員たるものは学あれども教授法に稽はず高等師範学校卒業生は教授法には精しけれども学識に乏し。[11]

이와 같이, 소세키는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우수 교사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어, 시급히 교원의 자격을 엄격히 하고 더욱 더 교육에 힘을 쏟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과와 문과 출신의 학사로 하여금 적어도 반년간 교수법 및 훈련방법을 강구시킨 후 또한 반년간 실험실습과 견학으로 지방의 중학교에 준교사가 되게하고 그 후 중학교원으로 채용하던가 아니면 고등 사범학교의 수준을 높여 충분히 학식 있는 졸업생을 양성하여 이런 자에게 중학 교육을 맡겨야 한다.

理科文科出身の 學士をして少しなくとも、半年間 教授法及び 訓練の方法を講究せしめたる上、又 半年間 實地見習ひとして地方の中学校に準教師となり然る後之を中学校員に採用するかあるいは高等師範学校の程度を高めて充分学識ある卒業生を養成し之に中学教育を托すべし。[12]

메이지 시대의 교육 현실과 교사에 대해서 소세키가 얼마나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첫 예문에서는 교사들을 '학식 천박한 유랑자' 라던가 '소년에게 해만 있지 이득이 없다'라는 과감한 표현도 서슴지 않고 비판하고 있다.

두 번째 예문에서는 이러한 교사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 그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즉 , 교사로서의 자질, 적성, 학식 등을 고려해서 교사의 자격을 엄격히 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13]

나 또한 아무리 학식이 높을지 언정 교원의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의미하다는 교육의 대해서 위와 같이 서복례의 주장에 같은 생각이다.

---

11) 前掲書, pp.56
12) 前掲書, pp.56
13) 서복례,『夏目漱石의 作品속에 나타난 教師像 考察 :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도련님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9 인용

또한, 소세키는 교원의 자격으로 덕이 있는 인물양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선생이 되는 자격으로서 필요한 것은 도덕이 지식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며, 덕성 높은 인물양성”[14]을 주장하고 있다.

> 지금의 중학교 교사인 자는 스스로 좋아해서 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호구에 지장이 있는 실업자나 그렇지 않으면 한때의 발판으로 잠깐 머무를 것에 지나지 않고, 학식이 천박한 무능한 조차도 교원으로서 고상한 직업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물며 대학을 졸업해 학사의 직함을 갖은 자를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좋은 지위를 얻어 따로 전직하려고 계획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
> 今の中学教師たるものは大抵自ら好んで其識に就きたるにあらず糊口に差し支へたる溢れ者か左なくば一時の足掛台として少らく茲に腰を据ゆるに過ぎず学識狭薄なる無能漢すら赤教員を以て高尚たる職業と思はず況や大学を卒業して学士の肩書を有する者をや彼等が一日も早く好地位を得て他に転職ねんと企つるは珍しからぬことなり。[15]

여기서 김윤경은 교원 임용의 자격을 엄격히 해서, 교원의 급료를 좋게 해 안심하고 교육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다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 즉, 가장 중요한 인간형성을 위해 국가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 이다 [16] 라고 주장하고 있다.

1890년의 교육칙어 (教育勅語)[17]에 의해 국가주의 체제의 방향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에 근대적 시각에 서서 인간 중시의 교육에 일관한 소세키의 제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다음으로 「중학개량책」의 3편에서는「학생의 개량」이지만「교사의 개량」3배 이상을 차지해, 「학생덕육의 개량」,「지육상의 개량」,「체육상의 개량」3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학생의 개량」에 관해서는 「지금의 소년학생들을 보고 놀라는 것은 그 덕의심(德義心)이 부족한 것」이며, 「덕의(德義)상의 근본은 아주 의심스럽고 불안하다」

---

14) 前掲書, pp.57
15) 前掲書, pp.58
16) 김윤경,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속에 나타난 교사상 고찰 :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봇짱, 산시로를 중심으로』, 석사논문, 2004, p.7 인용
17) 教育勅語: 1890년 10월30일 明治천황의 이름으로 발포된 교육에 관한 칙어로, 전쟁전의 국민도덕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함, 일본 제국주의 헌법을 공포한 정부는 곧이어 국민사상을 천황과 국가에 대한 충군애국(忠君愛國)에 의해 통일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칙어를 발포함.

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일정한 주의(主義)가 있어 지키는 것이 단단한 사람조차도 때로는 하루아침의 감정에 지배당하여 뜻밖의 실수를 할 정도인데 주의분별이 없는 무리가 제멋대로 굴게 되면 실로 한심한 실수와 손해를 빚어대기에 이른다」[18]고 말하며 학생이 견식(見識)과 덕의심(德義心)을 쌓고 몸에 익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세키는 "교사가 수업할 때는 물론 평소에도 언행을 조심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동시에 교실 내에서 주의가 미치는 것은 친절히 충고해야한다. 나는 학문의 교사이며 , 도덕은 나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19]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교육의 시작은 덕육(德育)의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의 도덕심을 고무하도록 주의하고 흥미를 더해 학생 스스로가 깨닫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며, 학생들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강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지육(智育)상의 개량에 관해서는 소세키의 전공인 영어 교수법의 개량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칙어(教育勅語)의 발포로 인해 천황과 국가 중심의 교육풍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교육을 강조한 소세키의 교육관은 다소 진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소세키가 「중학개량책」에서 강조한 것은 학교 교육의 본질은 정부가 추구한 '국가를 위하여' 보다는 '학습자를 위한 것 '이어야 하며, 학생들 개인의 '고유의 재능계발과 천부적인 적성 함양'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소세키의 「중학개량책」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소세키의 교육관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여기서 2. 중학개량책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 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학개량책』텍스트는 岩波文庫에서 1995년 출간한 문고판을 사용하였으며, 번역은 김대성, 김윤경 석사논문을 사용하였고, 인용문에는 주 처리 하였다.

---

18) 前出 김윤경 석사논문에 의한다.
19) 前出 김윤경 석사논문에 의한다.

3. 「우견수칙(愚見数則)」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

『도련님』의 주 배경이 된 시코쿠의 마쓰야마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소세키가 1895년 11월 25일 교우회 잡지『보혜회잡지(保惠會雜誌)』에 기고한 「우견수칙(愚見数則)」이란 글에서도 그의 교육관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 예전의 학생은 보따리를 둘러메고 사방을 유력하며, '저 분이라면'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우려고 했다. 따라서 부형보다도 선생님을 더 존경하였다. 선생님도 제자를 대할 때는 진정으로 자신의 자녀처럼 대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참다운 교육을 행할 수 없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학교를 마치 여관처럼 여겨, 돈을 내고 잠시 머무는 곳으로 여기는데 지나지 않는 곳으로 생각하여 싫어지면 여관을 옮겨버린다.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장은 여관의 주인과 같고 교사는 잡역을 담당하는 반토뎃치(番頭丁稚)가 되어 버린 것과 같다. 주인처럼 행세하는 교장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손님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반토뎃치는 더욱 말할 필요 조차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오만해 지고 교원들의 질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 昔の書生は笈を負ひて四方に遊歴し、此人ならばと思ふ先生の許に落付く、故に先生を敬ふ事、父兄に過ぎたり、先生も亦弟子に対する事、真の子の如し、是でなくては真の教育といふ事は出来ぬなり、今の書生は学校を旅屋の如く思ふ、金を出して暫く逗溜するに過ぎず、厭になればすぐに宿を移す、かこる生徒に対する校長は、宿屋の主人の如く、教師は番頭丁稚なり、主人たる校長すら、時には御客の機嫌を取らねばならず、況や番頭丁稚をや、(中略)生徒の増長し教員の下落するは当前の事なり。[20]

위 글을 집필하기 한 달 전 10월16일 마쓰야마 중학교에서는 스미타(主田)교장을 배척하는 난동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인 것 같다. 동경제대 출신에다 명문 고등사범학교 영어 촉탁 교사직을 사직하고 온 '거물 교사' 답게 부임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교내 잡지에 학교 교육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 선생님은 학부모처럼 학생들을 대하여 교육하지 않으면 참다운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봉건시대에는 제자가

---

20) 夏目漱石, 『漱石全集第十六券』,岩波書店 , 1995, p.3

스승을 찾고,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여 교육을 하였으므로 스승과 제자가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서로 신뢰 하에 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와 함께 학교라는 서양식 교육이 도입되어 자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제관계를 맺고 교육내용도 세분화되어 사제 간에 인격의 교류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지식이나 기술만을 주고받는 것이 주(主)가 되었으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미미해지고 무력한 교사에 방종 하는 학생이라는 교육의 부재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소세키의 「우견수칙(愚見数則)」에서 “이상은 식견에서 나오며, 식견은 학문에서 나온다. 학문을 해서 인간이 고양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무학(無學)으로 있는 편이 낫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이 담겨 있다. 이것은 소세키의 인격주의적 교육관을 보여주고 있다.

『도련님』중에서 학교에서 거짓말로 속이고 골탕 먹이는 짓을 하는 학생들에게 화를 내면서 겉치레나 뻔뻔스러움보다는 내면의 고상함을 가진 참된 학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 실려 있다.

> 학교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뒤에서 건방진 장난을 하고는 버젓이 졸업만 하면 교육을 받았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가진 녀석들과 상대한다는 것이 울화가 터질 노릇이므로, “너희들이 말하지 않겠다면, 나도 듣지 않겠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의젓한 일과 비열한 짓의 구별도 못하다니 불쌍한 놈들이다.”하고 여섯명을 내몰아 버렸다. …(중략)…겉으로 침착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더욱 나쁘다. 내게는 도저히 이만한 뻔뻔스런 뱃심은 없다.
>
> 学校へ入って、嘘をついて、ごまかして、かげでこせこせなまいきなわるいいたずらをして、そうして大きなつらで卒業すれば、教育をけたもんだと、かんちがいをしていやがる。おれは、こんなくさった考えのやつらと、談判するのはむなくそがわるいから、"そんなに言われなきゃ、聞かなくっいい。中学校へ入って、上品も下品も区別が出来ないのは、きのとくなものだ。"と言って六人をおっぱなしてやった。…(中略)…実は落ち付いているだけ、なおわるい。おれには、とうていこれほどの度胸はない。(본문 p.71)

실용으로서의 학문과 도구로서의 학문으로 전락해 가는 속물성, 그리고 세속성이 서구로 부터의 유입된 제도로 교육의 개념이라 하면, 일본의 전통 교육보다 하등한 퇴보개념의 교육인 것이다.

소세키의 「우견수칙(愚見数則)」내용 중에서 『도련님』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관을 뽑아서 어떤 식으로 작품화 되어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하겠다.

첫째, 여러 사람이 한사람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
多勢を恃んで一人を馬鹿にすれ勿れ[21]

『도련님』에서도 부임한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튀김국수사건', '경단사건'등과 이어서 '메뚜기사건', '함성사건'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학생들이 신임 교사인 주인공 '도련님'을 집단 괴롭힘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승전을 축하하는 기념식 장면이 나오는데 승전 기념일에 중학교와 사범학교와의 싸움이 있었다. 학생들을 말리려고 고슴도치와 함께 끼어든 것이 화근이었다. 말리려고 한 싸움이 커지면서 더 큰 싸움으로 변해 버렸다. 나중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쳐 곤란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신문에 까지 교사의 잘못으로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학생들이 도련님을 보는 시선은 달라진다. 교사의 입장에서 말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싸움에 얽히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버렸지만 학생들이 보기엔 두 선생을 자기들과의 입장에서 같은 생각이라는 것에 선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학생들에게는 정의로운 선생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둘째, 작은 꾀를 쓰거나 권모술수를 쓰지 말라.
小智を用いる勿れ、權謀を逞うする勿れ[22]

속물들처럼 교활하거나 권모술수를 써서는 안된다. 여기서 얕은 지식이라는 뜻을 지닌 '소지(小智)'는 이른바 '고가타니쟈이쿠(小刀細工)'[23]을 뜻하며 속물들의 대표적 근성이다. 대체로 교활하고 비겁하며 위선적인 권모술수에 능통한 이기주의자들이다, 소세키는 이들을 '소인(小人)' 이라 하고 뱀과 전갈 만큼이나 혐오하였다.

'메뚜기사건에 대하여 학생이 사과를 한 것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니고 교장에게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머리를 숙였던 것이다. 하지만

21) 夏目漱石, 『漱石全集第十七券』,岩波書店 , 1995, p. 5
22) 上掲書, p.6
23) 본래의 뜻은 작은 칼로 자잘한 세공을 한다는 뜻, 나아가 대국을 보지 못하고 잔재주를 부리는 것에 대해 사용하는 관용어다.

장사치가 머리만 숙이고 교활한 짓은 그대로 하는 것과 같이, 학생도 사죄는 하지만 다시 장난을 안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잘 생각해보면 세상은 모두 이 학생과 같은 주체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할 때, 여기서 바로 용서해 주면 너무 정직한 바보라고 할 것이다. 사과도 거짓으로 하는 것이니까, 용서도 거짓으로 해주면 되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사과를 받을 생각이라면, 본인이 진짜 후회할 때까지 체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도련님』은 이와 같은 소세키의 올바른 비판 정신에서 탄생된 작품임은 말할 것도 없다. 교감 '빨간 셔츠'는 이기주의적인 소인의 대표적인 본보기 이지만, 학교의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유능한 교육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또 '가지꼬투리'를 동정하여 자기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정의한 수학교사 '고슴도치'를 함정에 빠뜨려 사직을 강요하여 면직시킨다. 교감 '빨간 셔츠'를 처음부터 혐오해 오던 주인공은 '고슴도치'와 더불어 게이샤와 동침하고 나오는 '빨간 셔츠'와 '알랑쇠'를 '천주'라는 이름을 빌어 달걀과 주먹으로 구타하고 비난한다. 하지만 그런 속물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음날 학교에서 태연히 집무할 것이 틀림없다. 오히려 희생된 것은 도련님과 고슴도치, 가지꼬투리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도련님』에서 나쓰메 소세키는 도련님을 통해,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을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도련님이니 어린애 수작이니 바보 같다느니 하면서 경멸한다. 항상 정직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게 좋다. 차라리 눈을 질끈 감고 학교에서 거짓말하는 법이라든가 사람을 믿지 않는 꾀라든가 사람을 이용해 먹는 술책 같은 것을 가르치는 편이 세상을 위해서도 당사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비유하고 있다.

> 셋째, 사람을 보아라. 금시계만을 보지말라. 겉치레의 양복만 보지말라.
> 人を観よ、金時計を観る勿れ、洋服を観る勿れ 24)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자체를 볼 것이며, 지위나 권력, 금력등의 외견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능력주의의 근대사회에서 금력이나 권력이 없는 자는 소외되기 마련이다.

---

24) 前掲書, p.6

넷째, 위세를 부리지도 말고 아첨하지 말라.
威張る勿れ、諂ふ勿れ[25]

상대에게 위세를 부리지도 말고 기분 좋게 아첨을 해서도 안 된다. '위세부리(威張る)'는 힘 있는 속물들의 대표적인 근정이기도 한데, 그는 특히 재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위세를 부리는 자들을 혐오했다.

소세키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好惡의 감정이 뚜렷하다. 총명하고 정직을 신조로 하여매우 서민적이며 겸손한 성품이었음을 그의 수많은 서간(書簡)이나 '목요회(木曜會)'에 모인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아첨하는(諂ふ)'것은 소세키가 가장 혐오한 행위 중의 하나로『도련님』중에 나오는 '알랑쇠'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주인공 도련님은 '알랑쇠는 정말 싫다. 이런 녀석은 큰 맷돌을 달아서 바닷 속에 가라앉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도리이다.' 라고 있을 정도로 혐오하고 싫어하고 있다.

'가지꼬투리'나 '고슴도치'와는 다른 '알랑쇠'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언제 실직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교육의 민주화·자유화 없이는 올바른 인격을 갖춘 교사가 소신 있는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계는 아첨과 위선에 능한 자만이 남게 되며 학교는 인격도야는 고사하고 오로지 지식만 전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도련님』에 나타난 소세키의 교육관은 11년 전 「우견수칙」에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3. 「우견수칙(愚見数則)」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은 김대성, 『夏目漱石의 教育觀 研究 : 「坊っちゃん」,「中学改良策」,「愚見数則」을 중심으로 』, 2006 석사논문에 의한다.

25) 前掲書, p.6

Ⅲ. 『坊っちゃん』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

1. 도련님의 성격

1895년 4월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사직하고 마쓰야마(松山) 중학교 교사로 부임한다. 1년도 채 안된 소세키 자신의 교직생활의 바탕을 두고 교육의 현장과 그 실태를 그린 학교소설 『도련님』이다.

三好行雄는 "집필한 기간은 불과 10여일도 채 안되어 완성된 작품이지만 '제멋대로 쓴 여기(余技)'(唐木順三), '줄거리와 유머의 손실이 없는 통쾌한 걸작'(伊藤整)이라고 평가로 나뉘는 작품이지만 단순명쾌한 주제로 최후까지 책을 덮지 못하게 하는 긴장된 묘사는 많은 독자를 모으게 했다."[26] 라고 평가하고 있다.

먼저 소설의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건들이 하나하나씩 연결되어 소설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주인공 '도련님'은 스스로를 막무가내라고 부르고 못 뛰어 내릴걸 하는 친구의 말에 2층 건물에서 대뜸 뛰어내려 허리를 삐는가 하면 친척에게 선물 받은 서양제(西洋製) 칼을 시험해 본다며 뼈가 드러나도록 힘껏 엄지손가락을 긋기도 하는 순수하고 아이 같은 그의 의식세계는 주변을 향한 것 보다 자기주의로 몰두하는 자기지향적 성향을 띠고 있다.

권혁건은 "작품 첫 문장인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닮아서 함부로 덤벙대는 탓인지 어릴적 부터 나는 실패만 거듭하고 있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보면,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작품의 주인공이 막무가내의 성격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장은 주인공 「봇짱」의 어린 시절에 경험한 에피소드에 있어서 테마가 됨과 동시에, 또한 주인공 「봇짱」이 독자를 향해 이야기를 거는 형태의 손짓이라고 여겨진다."[27]라고 지적하고 있다.

>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닮아서 함부로 덤벙대는 탓인지 어릴적부터 나는 실패만 거듭하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2층에서 뛰어내려서 허리를 삐고 일주일동안이나 고생한 적이 있다. 왜 그 따위 짓을 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별다른 깊

---

26) 三好行雄, 『夏目漱石事典(39)』, 學燈社 , 1992, p.40
27) 권혁건 , 『나쓰메 소세키 문학세계』,學士院, 1994, p.220

은 이유는 없다. 새로 지은 건물의 2층 창에서 아래를 굽어보고 있는데 동급생 한녀석이 “네가 아무리 뻐겨봤댔자 거기서 뛰어내리진 못할 거다. 겁쟁이 겁쟁이 용용죽겠지!” 하며 놀렸기 때문이다.

親讓りの無鐵砲で小供の時から損ばかりしている。小學校に居る時分學校の二階から飛び降りて一週間ほど腰を拔かした事がある。なぜそんな無闇をしたと聞く人があるかも知れぬ。別段深い理由でもない。新築の二階から首を出していたら、同級生の一人が冗談に、いくら威張つても、そこから飛び降りる事は出來まい。弱蟲やーい。と囃したからである。(본문. p.5)

친척집에서 서양제 칼 하나를 얻어서, 새파란 칼날을 햇볕에 번쩍이면서 친구에게 자랑했더니, 그 친구가 보기는 근사하지만 잘 들지 않을 거라고 약을 올렸다. 그래서 나는, “안들긴 왜 안들어? 뭐든지 베어 보이겠어.”하고 장담했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그럼 네 손가락을 베어보라고 충동질하길래, 그까짓 걸 못 벨 내가 아니라고 큰소리치며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옆으로 쓱 베었다. 다행히 칼이 작았고, 엄지손가락 뼈가 억셌기 때문에, 아직도 내 손에 엄지손가락은 붙어 있기는 하다.

親類のものから、西洋製のナイフを貰つて奇麗な刄を日に翳して、友達に見せてゐたら、一人が光る事は光るが切れさうもないといった。切れぬ事があるか、何でも切ってみせると受け合つた。そんなら君の指を切つてみろと注文したから、何だ指くらい、この通りだ。と、右の手の親指の甲をはすに切り込んだ。さいわい、ナイフが小さいのと、親指の骨が堅かったので、今だに親指は手に付いている。 (본문. p.6)

여기서 석정희는 유년기 때부터 형과 대조된 도련님은 부모와의 정이 깊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편인 ‘형’ 이라는 소세키 문학에 공통되는 구도가 여기에서도 나타난다. 제 멋대로 경솔한 행동을 많이 하는 주인공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는 결코 따뜻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형만 역성들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차피 제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어머니는 「난폭하고 난폭해서 앞날이 염려된다」라고 말했고, 마을 사람들 또한 「난폭한 악동」으로 손가락 질 당했다. 무모한 주인공 ‘도련님’을 바라보는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눈은 불안과 괘팍함 이 있겠지만 상식과 양식을 파괴하는 곳에 공통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괘팍함이라는 것도 원래 유전적인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성질이 어느 정도 양친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것에서 나타나는 반응일지도 모른다[28] 라고 주장하고 있다.

28) 석정희,『夏目漱石 小考: 봇짱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18

아버지는 털끝만치도 나를 귀엽게 여겨 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형의 편만 들었고.. 형은 얼굴빛이 사내답지 못하게 해맑은 데다가 연극놀이에서도 여배우 흉내를 내며 기뻐했다. 아버지는 나를 볼 때 마다 쓸 만한 자식이 못된다고 야단만 쳤다. 어머니도 깡패짓만 해서 장래가 걱정이라고 했다. 과연 나는 쓸만한 인간과는 거리가 멀다. 보다시피 요모양 요꼴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눈에 장래가 염려되는 것도 당연하다. 나는 징역살이를 살듯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おやじは、ちっともおれを可愛がってくれなかつた。母は兄ばかりひいきにしていた。おれを見るたびに、こいつは、どうせろくなものにはならない。と、おやじがいった。乱暴で乱暴で、ゆきさきがあらんじられる。と、母が言った。なるほど、ろくなものにはならない。ごらんのとおりのしまつである。(본문 .p.8)

형만 편애하는 편식주의적인 부모의 사랑에서 밀려난 도련님을 유일하게 인정해 주고 귀여워 해 준 가정부 늙은 노파 기요(淸)이다.

유난히 늙은 노파 기요(淸)는 맹목적으로 도련님을 믿어주고 귀여워 해주었다. 항상 도련님에게 앞으로 장래에 입신양명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는 둥어떤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도련님에게 청년기에 들이 닥친 현실이 찾아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에게 받은 고작 600円으로 혼자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 생각한다. 600円을 쪼개어 3년간 공부를 하고 졸업한다. 이런 부분 에서는 도련님은 현실주의자적인 성격을 갖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런 장래와 계획도 없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마냥 사고를 치고 마는 무모함과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선 행동하는 그의 성격은 다음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다행히 물리학부 앞을 지날 때 학생모집 광고가 눈에 띠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인연이란 생각에 지원서를 얻어 입학 수속을 해 치웠다. 지금생각하면 이것도 부전자전의 무계획성에서 생긴 실책이다. …(중략)… 졸업 후 여드레째 되는 날에 교장이 부른다고 하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았더니, 시코쿠(四國)지방에 있는 중학교에서 수학선생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 이였다. 월급은 40円인데 가 볼 의향이 있느냐는 거였다. 나는 3년 동안 공부는 했지만, 사실은 교사가 될 생각도, 시골로 갈 생각도 전혀 없었다. 교사 이외에 다른 무엇을 하려는 목표도 몰론 없었으므로, 이 제의를 들었을 때 즉석에서 승낙했다. 이것도 부전자전의 무계획성 덕분이다.

さいわい物理学校の前を通りかかったら、「際と募集」の広告がでていたから、なにも縁だと思って、規則書をもらって、すぐ入学のてつづきをしまった。今考えると、これも親譲りの鉄砲から起った失策だ。…（中略）…卒業してから八日目に校長が呼びに來たから、何か用だろうと思って、出掛けて行ったら、四國へんのある中學校で數學の教師がいる。月給は四十円だが、行つてはどうだといふ相談である。おれは三年間學問はしたが實を云ふと教師になる氣も、田舎へ行く考へも何もなかつた。もつとも教師以外に何をしようというあてもなかったから、この相談を受けた時、行きましょう。と、そくざくに返をした。これも親譲りの無鐵砲がたたったのである。(본문. p.20~21)

또한, 도련님은 자기중심적이고 치밀하지 못하면서 도시출신이라는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소유자이다. 초임교사로 부임해 간 중학교에서 교사와의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는 에돗코 (江戸っ子)로 묘사한다. 에돗코란 에도에 사는 쵸닌(町人)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매사에 구애받지 않고 의지에 가득 찬 의협심을 뽐내는 반면 성급하고 경솔하다는 말을 듣는다. 이러한 그의 성격은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 첫 부임하는 당일 교장선생님께서 도련님께 교육의 정신을 설교하는 도중 도련님은 자신이 여기에 온 것을 크게 후회한다.

그렇게 까다로운 의무라면 채용하기 전에 이러저러하다고 미리 말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아는 거짓말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기 때문에, 속아서 왔다고 담백하게 사절하고 이대로 돌아가 버릴 생각이 들었다.
そんな難しい役なら、やとう前に、これこれだと話すがいい。おれは嘘をつくのが嫌いだから、しかたがない。だまされてきたのだと諦めて、思い切りよくここで断って帰っちまおうかと思った。(본문. p.32)

어찌 보면, 도련님은 솔직한 면도 있지만 귀찮고 틀에 박힌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점도 볼 수 있다. 유년시절부터 도련님은 천방지축에 자기중심적 지향인물로,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남들과 융합하는 면도 귀찮고 성가신 일로 여긴다. 교장이 말하는 교육의 정신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도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고 도쿄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는 대목에서 교과서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자기 틀 속에 사회가 맞춰서 돌아가 주길 바라는 어쩌면 이기적이고 편의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도련님은 솔직하다 못해 다혈질적이며, 쉽게 흥분하고, 단순하다. 중학교 수학선생님으로 부임 받아 온 도련님은 학생들의 신참내기 교사 신고식을 행하는 도중 이걸 참지 못하고 무례한 행동을 취한 학생들의 처분문제를 놓고 교직원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두서없이 횡설수설한다.

어쩐지 화가 치밀어서 복안이 서기도 전에 불쑥 일어서고 말았다.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하곤 그 뒤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 그런 이치에 닿지 않는 처분은 매우 부당합니다. 하고 뒤를 잇자, 직원 전원이 웃음보를 터트렸다. 도대체 학생이 아주 나쁩니다. 어쨌든 사죄를 하게 하지 않으면 버릇이 됩니다. 퇴학을 시켜도 좋습니다. 그런 실례 천만의 짓을 하다니, 새로온 교사라고 깔보고서... 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何だか非常に腹が立ったから、腹案も出來ないうちに起ち上がってしまった。「私は徹頭徹尾反對です……」といったがあとが急に出て來ない。……そんな頓珍漢な、處分は大嫌ひです」とっけたら、職員が一同　笑ひ出した。「一體生徒が全然惡るいです。どうしても詫まらせなくつちや、癖になります。退校さしても構ひません。……何だ、失敬な、新しく來た教師だと思って……と言って着席した。 (본문 .p.112~113)

너무나 솔직하고 정직한 나머지 교직생활을 오래한 교감선생이 도련님에게 충고를 한다. 도련님은 졸업을 한 후 바로 사회생활에 뛰어든 사람으로 사회생활의 노련함과 숙련미가 떨어지는 인물이다.

“선생도 화나는 일이 있겠지만, 그런 때일수록 참을성이 필요해요. 결코 선생한테 해가 되도록 하지는 않을 테니까.” …중략… “실례지만 선생은 학교졸업하고 교사는 처음이지요? 헌데 학교라는 데는 또 그 나름대로의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선생같이 담백하게는 되지를 못한답니다.” “담백하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선생은 그렇게 솔직하니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중략… “ 정직하게 살면 누가 나를 이용하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そこにはいろいろな事情があつてね。君も腹の立つ事もあるだらうが、ここが我慢だと思つて、辛防して呉れたまへ。決して君のためにならないやうな事はしないから“… (中略) …”あなたは失禮ながら、まだ學校を卒業したてで、教師は始めての、經驗である。ところが學校というものはなかなか情實のあるもので、さう書生流に淡泊には行かないですからね” 淡泊に行かなければ、 " どんな風に行くんですか " 、 " さあ君はさう率直だから、まだ經驗に乏しいと言うんですね…… " … (中略) …正直にしていれば誰が乗じたって怖くはないです“ (본문 .p.93~94)

빨간 셔츠와 알랑쇠의 당부에도 마다하고 도련님은 자신의 정직함으로 어둠의 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믿는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도련님과 학교상부와의 갈등은 예상 된 바 아닐까 하는 생각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인 학교가 도련님에게는 미묘한 상부와의 상하관계, 그리고 표리부동적인 요소가 가미된 곳이라는 학교의 또 다른 모습을 암시 하게 한다[29]라고 석정희는 말하고 있다.

축승일로 인해 학교가 쉬는날, 학생들과 사범학교 학생들 간의 싸움으로 고슴도치와 도련님이 그 사건에 말려든 적이 있었다. 빨간셔츠의 계략으로 꾸며진 일이었지만, 그대가로 너구리는 고슴도치에게 학교를 떠나 달라는 당부를 한다.
정직하고 우직한 성격을 갖은 도련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큰 분노감에 참지 못하고 교장실로 달려가 담판을 벌인다. 주위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표출하는 도련님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어쩜 아직도 도련님은 신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하다고 느껴진다.

> 이튿날 나는 학교에 나가서 교장실에 들어가 담판을 시작했다. 어째서 제게는 사표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에? 하고 '너구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홋타'선생에게는 내라고 하고 , 제게는 내라고 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 학교 사정이..., 그 사정이란게 틀려 먹었어요. 제가 사표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홋타'선생 역시 사표를 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중략… 그렇다면 저도 사표를 내지요. ' 홋타'선생 혼자 사직하게 하고, 제가 천연스럽게 머물러 있을 줄로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그런 몰인정한 태도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
> あくる日おれは學校へ出て、校長室へ入って談判を始めた。何で私に辭表を出せといわないんですか,へえ？,と貍はあっけに取られている。堀田には出せ、私には出さないで好いと言う法がありますか?,それは學校の方の都合で…その都合が間違ってまさあ。私が出さなくって濟むなら堀田だって、出す必要はないでしょう。…（中略）…それじゃ、私も辭表を出しませう。堀田くん一人辭職させて、私が安閑として、留まっておられると思っていらっしゃるかも知れないが、私にはそんな不人情な事は出来ません。(본문 .p.204~205)

자신의 성급함과 인내력 없는 모습도 곳곳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렇듯 부조리한 교직생활에서 결국 고슴도치와 도련님은 패배감을 안고 내려가는 사람들 마냥

29) 前出 석정희 석사논문에 의거함, p.

그 속에서 탈출을 시도한다. 결코 씁쓸해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야 겨우 제대로 된 세상으로 온 것 같다고 한다. 소세키가 자신과 맞지 않는 교직생활을 사임한 기분을, 『도련님』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도련님'을 통해 소세키는 자신의 떠한 태도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보려고 한다.

2. '도련님' 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

『도련님』은 소세키가 대학을 졸업하고 1895년 중학교의 촉탁교사로 시코쿠 마쓰야마에 부임했을 당시 소재를 얻고 10년이 지난 후에 작품화 한 것이다.

주인공 도련님의 등장 시점과 인칭은 24세의 '나 (おれ)'로 설정하여 자신의 유년 시절에서부터 마쓰야마 중학교 교사직을 사임 후 도쿄로 돌아와 기수(엔지니어)신분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학교 소설이라 할 수 있다. 권선징악과 이상을 담으면서도 당시 교육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등장인물들에게 설정 해,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자아내고 있다.

소세키는 1892년(明治25年) 5월 동경전문학교의 강사를 맡으면서부터 교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후 동경 고등 사범학교의 강사로 겸하면서 영어 선생님이 되었고 마쓰야마 중학교에서도 교장보다 월급이 20円 더 많았다.

소세키 자신은 교사로서 부적합 하다고 생각하며, 「나의 개인주의(私の個人主義)」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 하고 있다.

> 교육자로서 훌륭하게 될 수 있는 자격은 저에게 처음부터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마음이 답답하고 송구스러웠습니다. 가노씨도 당신은 지나치게 정직해서 곤란하다고 말할 정도로 혹은 뻔뻔스러웠어도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저에게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곳이라고 밖에 생각되어 지지 않습니다.
>
> 教育者として偉くなり得るなうな 資格は私に最初からわけていたのですから、私はどうも窮屈で恐れ入りました。嘉納さんも貴方はあまり正直過ぎで困ると言った位ですから、或はもっと横着を極めていても良かったのかも知れません。然し何うあっても私は不向しな所だとしか思はれませんでした。30)

소세키에게 있어서 학교란 편하게 지낼만한 곳이 아닌, 스스로가 교사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세키는 '도련님' 을 통해 인물들을 설정해 놓고 자신의 삶과 시대를 그리고 있다. 대쪽 같고 너무 곧아서 휘어지지 않은 성격의 교사가 시골 한 중학교에 부임하면서 사건의 발단은 시작된다. 교감을 비롯한 이기적이고 사회에 순응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투다가 결국은 사회에 패배감을 맛본 후 도쿄로 돌아오는 내용이다. 비열하고 파렴치한 인간들과 좌충우돌 하는 도쿄의 신참 선생의 사회 체험이야기다.

주인공 '도련님'은 자기중심적이며, 성급하고 도시 출신이라는 편견을 갖고 사는 열등감의 소유자이다. 자신의 생각을 고려해 볼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해 버리는 주인공 도련님은 여기에서 실제로 소세키가 교사가 된 동기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 그때의 나는 대학을 졸업할 직전까지 무엇을 하며 먹고 살면 좋을까 모를 정도로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람이였지만, 막상 세상에 나와 보니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하숙비가 들어 올 리도 없고 …(중략)…나는 그런 애매 모호한 태도로 세상에 나와 결국은 교사가 되었다기 보다는 교사가 되어져 버린 것이다.
>
> 其時分の私は卒業する間際まで何をして衣食の道を講じていいか知らなかった程の迂闊者でしたが、さていよいよ世間へ出て見ると懐手をして待っていたって、下宿料が入ってくる訳でもないので …（中略）…私はそんなあやふやな態度で世の中へ出てとうとう教師になったというより教師にされてしまったのです。[31]

즉, 교사로서 사명의식을 다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생활 수단방법으로서 교사의 길을 선택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소세키는 주인공 '도련님' 을 통해 자신이 교사가 된 계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애매모호한 태도로 세상에 나와 결국은 교사가 되었다기 보다는 교사가 되어져 버린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스스로 중학교 교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생계수단으로 교사직을 맡게 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련님'은 3년간 물리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과 동시

---

30) 夏目漱石,「私の個人主義」, 講談社, 2010, pp.129
31) 前掲書, pp.126~132

수학교사가 되어 시골 어느 한 중학교에서 부임하게 되지만, 교사로서의 자질과 사명을 갖고 있지 않는 인물이다. 학식 면에서는 어느 것 하나 특출 나게 내세울 것도 없으며 학생들과의 유대관계가 전혀 없으며, 누구에게나 얽매이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1개월도 넘기지 못하고 제멋대로 퇴임해버리는 등, 책임감도 없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학생 편에 서서 이해하는 부분이 적으며 싫고 좋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이다.

또한,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도모하고 양성하는 일반적인 교사모습이 아닌 다만 학교에 나와 자기가 배분 받은 수업시간에만 충실한 인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수업에 힘쓰는 교사의 모습도 볼 수 없다. 그 당시 시대상황을 비춰보면 도련님뿐만 아닌 거의 모든 교사들이 그러 하였을 것이다.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자기 생계를 짊어지고 , 강한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일반 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도련님은 대나무처럼 곧은 성품으로 정의감에 불타 동료교사를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남자 중의 남자 모습에서 출세와 권력에 연연 해 하지 않는 대장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소세키는 당시의 교육현실을 경험하고 깨달은 후, 도련님 같은 주인공을 외연화 시켜, 아무런 목적 없이 교사가 된 교사들과 교육현장 등을 재구현 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교육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어쩌다가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을 보면 도련님이라는 둥, 애숭이라는 둥, 트집을 잡아 업신여긴다. 그렇다면 소학교나 중학교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윤리선생이 가르치지 않는 편이 낫다. 차라리 단념하고 학교에서 거짓말을 하는 법이라든가 남을 믿지 않는 술법이라든가 사람을 이용하는 술책을 가르치는 편이 세상을 위해서도 , 당사자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
> たまに正直な純粋な人を見ると、坊っちゃんだの、小僧だのと、なんくせをつけてけいべつする。それじゃ小学校や中学校でうそをつくな、正直にしろう。と、倫理の先生が教えない方がいい。いっそ思いきって、学校で、嘘をつく法とか、人を信じない術とか、人をのせる策を教授するほうが、世のためにも、当人のためにもなるだろう。32)

소세키는 거짓과 위선, 불신이 태연한 교육현장에 대해서 수학선생을 통해 비판

32) 夏目漱石,『坊っちゃん』, 講談社 , 2004, pp.95

하고 간접적으로 교육계의 각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교육이 지육(智育)편중으로 초래하는 문제점을 단편적으로 풍자하여, 교육현실의 올바른 조성을 짙게 호소하는 소세키의 의도를 느낄 수 있다.

여기서 홍승희는 "작품 안의 아카샤쓰 (赤シャツ)는 유일한 문학사 이지만 교활한 성격을 지닌 智育편중의 교육자라면 우라나리(うらなり)는 고결한 인격을 지닌 德育의 교육자로 상반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우라나리(うらなり)는 소세키가 理想으로 생각하는 교사상이다."33)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박무희는 "うらなりは 복잡한 사회 속에 살면서, 최후까지도, 현세에 물들지 않았으며, 겉과 속이 다른 세상의 논리를 깨닫지 못했으며 또한 그러한 논리에도 휘말려 들지 않았던 유일한 인간이었다." 34)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의 문장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 볼 수 있는 힘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 학교에는 숙직이 있어서, 직원이 돌아가며 당직을 했다. 단지 '너구리'와 '빨간셔츠'만은 예외이다. 어째서 이 두사람이 당연한 의무에서 제외되느냐고 물어보니 , 주임 대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미없는 수작들이다. 월급은 많이 받고 , 수업시간은 적으면서도 숙직에서 빠진다는 것은 이만저만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맘대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행세를 하고 있다. 잘도 그런 뻔뻔스러운 짓을 해낸다.
>
> 学校には宿直があって、職員がかわるがわるこれをつとめる。ただし、たぬぎと赤シャツは、例外である。面白くもない。月給はたくさんとる、時間は少ない、それが宿直をのがれるなんて、不公平があるものか。かってな規則をこしらえて、それが当たり前だというような顔をしている。よくまあ、あんなにずうずうしてできるものだ。(본문 .p.59)

주인공 '도련님'은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숙직을 면한다는 점에 큰 분노를 느낀다. 상급자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조직체 안에서 「강자의 권리」라는 권위의식 속에서 불만을 사는 장면이다. 소세키는 당시 학교라는 공간을 매개체로 하여 교육의 실태를 그려 넣어 권위의식에 의한 비인격적인 인간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위의식은 오히려 불만을 사게 되며 학교라는 조직사회의 조화를 위협하는 한 효인이 될 수 있고, 권위의식에 의한 관리자로서의 교장·교감보다는 교육의 동반자로서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소세키가 작품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

33) 홍승희, 夏目漱石의 작품 속에 나타난 교사상, 석사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pp. 37~38
34) 박무희.『夏目漱石』에 나타난 先生像의 小考, 서경대학교 논집 제23집, 1995, pp.73

당시 교육현실의 교육자의 자질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드디어 학교에 나갔다. 처음으로 교실에 들어가서 높은 것에 올라 섰을 때는 뭔가 이상했다. 강의를 하면서 나도 선생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 …(중략)…싸움이라면 씨름꾼하고 해 보이겠지만, 이런 큰 녀석들을 40명이나 앞에 놓고, 단지 한 장의 혀를 놀려서 황송하게 여기게 만들 재간은 없다. 그러나 이런 시골 녀석들한테 약점을 보이면 버릇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로 약간 굴린 언어로 강의해 주었다. …(중략)… 나는 동경 토박이니까 너희들의 말은 사용할 수 없다. 모르면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대답해 주었다.

いよいよ学校へ出た。はじめて教場に入って、高い所へのった時は、なんだかへんだった。講義をしながら、おれでも先生がつとまるのかと思った。… (中略) …喧嘩なら相撲とりとでもやってみせるが、こんな大憎を四十人も前へならべて、ただ一枚の舌をたたいて、恐縮させる手ぎはない。しかしこんないなかものによわみをみせるとくせになる、と思ったから、なるべく大きな声をして、少々巻き舌で講義してやった。… (中略) …おれは江戸っ子だから、きみらの言葉は使えない、分からなければ、かわるまで待ってるがいい。と答えてやった。(본문 p. 42~44)

주인공 '도련님'은 학생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지도해야 할 교육자로서 역할 보다는 마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않은 채 교육현장에 뛰어든 행동으로 그저 버릇없는 시골학생들에게 위압감과 공포심으로 압도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지도 방법에서 일반적인 교육방법을 이탈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의 막무가내 식의 교육을 하고 있다. 소세키는 생활수단으로 교사의 길을 걷게 되는 부조리한 사회속의 교육자들의 교육현실을 직설적이고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만 교실을 나오려고 할 때, 한 학생 녀석이 "잠깐 이 문제를 풀어 주실 수 없으세요. 혹시?"하고 되지도 않는 기하한 문제를 가지고 대느는 데는 진땀을 흘렸다. 할 수 없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다음에 가르쳐 주겠다"며 서둘러 교실을 빠져 나왔더니 학생들이 "와아-"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 중에는 " 못한다 못해"라는 소리도 들렸다.

ただ帰りがけに生徒の一人が、ちょっとこの問題のかいしゃくをしておくれんかな、もし。とできそうもない幾何の問題をもってせまったには、ひやあせを流れした。しかたがないから、何だわからない、このつぎ教えてやる。と。いそいでひきあげたら、生徒が、わあー、とはやした。その中に、できん、できん。という声が聞こえる。(본문. p. 44)

학식이 부족한 주인공 도련님은 학생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진땀을 흘리고,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한다. 김광수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자신의 정직함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무능력을 변명하고 있다. 또한 도련님은 현실에 통용되지 않는 정직과 순수함이 경멸당하고 단순하고 진솔함이 비웃음을 받는 세상에 대한 해학적 반발을 하고 있다[35] 라고 언급하고 있다.

도련님과 학생사이의 대립구도가 전개되는 2장에서는 당시 학교교육을 비판하려는 소세키의 비판 정신을 세세히 반영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동경출신의 도련님은 졸업 후 시코쿠에 있는 한 중학교의 수학교사로 부임 후, 학생들의 짖궂은 장난인 '메뚜기 사건'과 '메밀국수 사건' 으로 교사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학생들의 단순한 호기심 마저도 불쾌하고 언짢아하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또한 도련님은 시골촌구석의 학생들과 조금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덴푸라 사건을 러일전쟁 같이 여기는 모양이었다. 가엾은 자들이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심신이 온통 오그라 들어서, 분재한 단풍나무 같은 소인이 되고 만 것이다.…(중략)… 어린 녀석들이 어딘지 독기(毒氣)를 품고 있다.
>
> てんぷら事件を、日露戦争のように、ふれちらかすんだろう。やわれなやつらだ。子供の時から、こんなに教育されるから、いやに、ひねっこびた、植木ばちのかえでみたような子供ができるんだ。… (中略) …子供のくせに、おつに毒気を持ってる。(본문. p. 54)

풋내기 신참 수학선생의 행동에서 우리는 교사로서의 이해심과 책임감의 부재를 볼 수 있고, 교사 스스로가 교육현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학생들을 가까이 두고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소세키는 작품 속에서 상충되는 등장인물의 대립으로 '정'과 '반'을 대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김대성은 도련님을 '정(正)'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정의감 넘치는 인물인 반면, '반(反)'은 자신의 출세만을 도모하고 , 남과 배척하고 사회를 경쟁사회로 이끌어갈 소

---

35) 김광수, 『夏目漱石와 그의 작품에 나타난 지식인상』,박사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2, pp.106 인용

세키가 우려하는 인간상을 대변한다. 소세키는 이 두 측면에서 인물들을 대립시킴으로서 현재 사회의 인간들이 급속히 변하는 사회에 휘말리면서 점차적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점점 긍정해야할 인물에서 동떨어지며, 부정해야할 인간상에 점차적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6] 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상물정도 모르고 , 자존심만 세며, 대쪽 같은 생각을 갖은 도련님은 담백함을 지니고 있는 '야마 아라시'와 같은 인물이 교육 현장에서 인정받게 되고 , 고결한 인격을 갖은 '우라나리'와 같은 교사가 존중받게 될 때 올바른 교육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것이 소세키의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된다. 또한, 소세키의 인간 혐오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도련님'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이 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한 인간상을 그려내고 싶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물은 일반적으로 인간세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 도련님의 정직과 정의를 몸소 실천하는 면에서는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혼자가 아닌 인간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할 때 인간관계의 유지와 사회참여라는 면에서 보면 일반 사람들과 융합할 수 없는 성격인 것이다. 소세키가 지적했듯이 도련님이라는 인물은 어떤 점에서는 사랑할만하고, 동정을 나타낼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지만 너무 단순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에는 원만하게 생존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본다.

진실을 찾기 힘들고, 부조리한 사회를 바로 잡으려는 일들이 외면을 당하게 되는 現사회의 모습을 소세키는 풍자와 해학으로 표출하려고 한 것이다.

3. 그 외 인물들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

시코쿠의 마쓰야마 중학교로 촉탁부임 받은 도련님은 교사들과의 융합에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외 인물들을 통해 본 소세키의 교육관을 살펴보기에 앞서 도련님과 그 외 교사들의 대립갈등의 구조에 중점을 두고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교육관을 분석하였다.

---

36) 김대성, 『夏目漱石의 敎育觀 硏究 : 도련님, 중학개량책, 우견수칙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p.28

마쓰야마 중학교의 교장의 별명은 '너구리'인데 그의 실제모델은 당시 교장 스미타 노보루 (住田昇)이다. 그는 권위주의로 가득 찬 전근대적인 유형의 교장이다. 교장은 당시 편협한 인사(人事)로 인하여 학생들로부터 배격되었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하에게는 전출지(轉出地)를 정해 놓고는 퇴진한다.

『도련님』에 등장하는 마쓰야마의 중학교 교장의 별명은 '너구리'라 칭하고 있다. 그는 매우 형식적이며 점잔을 빼면서 권위를 행사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다음의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 교장은 수염이 듬성듬성하고 , 얼굴빛이 검고, 눈이 큰 너구리 같은 남자다. 여간 점잔을 빼지 않았다.
> 校長はうすひげのある、色は黒い、目の大きな、たぬぎのような男である。
> いやにもったいぶっていた。(본문 .p. 31)

교장이 '너구리'로 별명이 붙여진 이유는, 약간 대머리에 수염은 듬성듬성 나 있고, 얼굴색은 거무스름하고 눈이 동그랗게 커서 너구리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장은 도련님이 학교에 첫 부임 받아서 오자마자 교장실에서 지루한 교육정신을 설교하였다. 다음의 장면에서 교장의 교육정신을 살펴 볼 수 있다.

> 그리고 선 교육의 정신에 대한 지루한 강의를 들려 주었다. 나는 물론 건성으로 듣고 있었지만, 강의 도중에 이거 큰일 날 곳에 왔다고 후회했다. …(중략)…나 같은 무모한 자를 붙잡고 학생의 모범이 되라느리, 전교의 사표(師表)로 우러러 보이게 하라느니, 학문 이외에 개인의 덕화(德化)가 없으면 교육자는 못 된다느니, 엄청난 주문을 한다.
> それから教育の精神について、長いお説教を聞かせた。おれはむろんいいかげんに聞いていたが、途中から、これはとんだところへきだと思った。… (中略) …おれみたような無鉄砲なものをつかまえて、生徒のもはんになれ。の、一校の手本とあおがれなくてはいかん。の、学問以外に、個人の徳化をおよぼさなくては、教育者になれない。のと、むやみにむちゃな注文をする。(본문 .p. 32)

교장은 신참내기 도련님에게 교육의 정신을 설명하면서 교과서적이면서 틀에 박힌 전형적인 면을 강조하는 인물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도련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어려운 교육의 정신을 부탁한다. 학생들에게는 교사로 우러러 보이게

하라는 둥, 학문 이외에 개인의 덕화(德化)가 없으면 교육자가 되지 못하는 둥, 겉으로는 덕망이 높고 교육자적 자질을 갖춘 언행과 행동을 취하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태도를 바꾸는 처세술이 뛰어난 인물이다.

따라서, 교육은 곧 형식과 규제를 강조하는 전근대적(前近代的) 교육관을 지닌 者이다. 교장은 상투적인 문구의 교육정신(敎育精神)에 대해 매우 정교하게 강의를 하고 필요 없이 모든 교사들에게 그의 임용장인 사령(辭令)을 보여 줄 것을 명령하면서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학교의 사표가 되지 않고서는 안된다. 학문 이외에 개인의 덕화(德化)를 펼치지 않고서는 교육자가 될 수 없다.'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하지만 도련님은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일절 단호히 거절한다.

> 도중에서 여비가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거짓말을 하느니 보다는 떳떳하게는 생각으로 " 저는 도저히 교장선생님 말씀대로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임명장을 도로 반환하겠습니다. "
>
> 旅費はたりなくっても、うそをつくよりましだと思って、とうてい、あなたのおっしゃるとおりや、できません。この辞令はかえします。(본문 .p.32)

그리고, 빨간셔츠 (赤シャツ)의 별명을 가진 교감의 실제 모델은 교장에서 알랑거리고 교사들을 편애하는 마쓰야마 중학교 교사 사와유키 지로우(沢幸次郎)이다. 도련님의 교육관과는 다소 극과 극을 갖은 '선(善)과 악(惡)'의 대표인물로 등장하면서 이기주의적이고 출세주의의 이익사회를 지향하는 인물이다.

소세키의 곧고 정직한 성품을 작품 속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빨간셔츠는 동료교사 가지꼬투리(うらなり)의 약혼자인 마돈나에게 접근해 둘 사이를 갈라놓고 , 절호의 기회를 틈타 비열한 수단으로 마돈나를 가로채 간다. 동료교사인 고슴도치(山嵐)가 이를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 빨간셔츠의 계략을 방해 하려하자, 고슴도치를 제거작전을 소탕하며 자신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지꼬투리만 머나먼 외딴 산간지방으로 전근시키는 등 겉으로는 상냥하고 배려심 많은 척 하면서 내면에는 온갖 권모술수로 가득 차 있는 도덕 불감증의 인물이다.

교감인 빨간셔츠는 문학사를 전공한 사람이지만, 그의 걸맞지 않게 빨간셔츠는 이중인격자이며, 정의와는 가까이 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기 바쁘다.

사회의 비리와 위선, 행동, 처세 모두다 체면과 거짓으로 포장되어 인간의 간사함을 극명하게 보여 준 다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도련님이 교감의 모습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 인사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교감도 있었다. 그는 문학사라고 한다. 문학사라면 대학을 졸업한 훌륭한 인물일 게다. 그는 여자같은 상냥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중략)…문학사라 그런지 괴짜도 이만저만 괴짜가 아니다. 게다가 빨간 색깔이라니...!!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는 일년 열두달 언제나 빨간 셔츠를 입는다고 하니, 참 기묘한 병에 걸린 사람이다.
>
> あいさつをしたうちに、教頭のなにがしというのがいた。これは文学士だそうだ。文学士といえば、大学の卒業生だから偉い人なんだろう。みょうに女のようなやさしい声をだす人だった。… (中略) …文学士だけに、ごくろせんばんなりをしたもんだ。あとから聞いたら、この男は、年がら年中赤シャツを着るんだそうだ。みょうな病気があったものだ。(본문. p. 34)

어찌보면 교감이 일년 열두달 빠지지 않고 입는 빨간셔츠 또한 학교사회라는 공간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권위를 상징하는 매개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교장과 교감의 비교육자(非敎育者)적인 모습을 엿볼수 있는 장면을 소세키가 도련님의 작품 속에서 비난하는 장면이다.

> 그리고는 '너구리'가 일어나고, '빨간셔츠'가 일어섰다. 제각기 송별사를 놀어놓았지만. 세사람 모두 똑같은 말을 맞춘듯이 '가지꼬투리' 선생은 훌륭한 선생이고 이렇게 떠나게 되니 지극히 섭섭한 일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도 크게 섭섭한 일이지만 일신상의 사정으로 전입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는 뜻으로 말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송별회를 열고도 조금은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는다. 특히, '빨간셔츠'는 세 사람 가운데서 제일 '고가'선생을 추켜 세웠다. '이런 좋은 벗을 일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실로 커다란 불행'이라고 까지 말했다. 그 말하는 태도가 그야말로 진실인양 그 상냥스런 목소리를 한층 상냥스럽게 말하였으며, 처음 듣는 사람은 누구나 틀림없이 속아 넘어갈 것이다.
>
> それからたぬきが立つ、赤シャツが立つ。ことごとく送別の辞をのべたが、三人と伴うし合わせたように、うらなりくんの、よい教師で、お人よしなことをいいふらして、今回去られるのは、まことに残念である。学校としてのみならず、個人として、おおいにおしむところであるが、ご一身上のごつごうで、せつに転任をご希望になったのだから、いたしかたが

ない。という意味をのべた。こんなうそうをついて送別会をひらいて、それで恥ずかしいとも思っていない。ことに、赤シャツにいたっては、三人のうちで一番うらなりくんをほめた。この良友を失うは、実に自分にとっておおいなる不幸である。とまでいった。しかもそのいいかたが、いかにも、もっともらしくて、礼のやさしい声をいっそうやさしくして、のべたてるのだから、はじめて聞いたものは、だれでもきっと騙されるにきまっている。(본문. p.165~166)

자신들의 음모속에 희생당하는 동료교사의 송별회에서 죄책감을 느끼기는 커녕,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교육자로서 점잖은 척하는 그들의 가면 쓴 얼굴 속에서 환멸을 느낀다.

홋타(掘田)선생님은 도련님이 '고슴도치'라는 별명을 붙혀 준다. 그는 교장, 교감, 알랑쇠와 같은 이기주의적이고 비교육자들과 대립하는 입장에서 싸우는 용기 있는 교사로, 도련님이 숙직 하던 날, '메뚜기사건'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봉변을 당한 후, 그 학생들의 처리 문제로 논의하는 회의장에서 '고슴도치'는 모든 교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말함으로써 확고한 그의 교육 정신을 볼 수 있다.

'고슴도치'는 유리창이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나는 교감선생님과 기타 여러분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그 까닭은,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보든지 50명의 기숙생이 새로 온 교사 모씨를 경멸하고, 그를 희롱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감선생님은 그 원인을 교사의 인격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 같으나, 실례지만 그것은 큰 실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씨는 부임 후 첫 숙직을 하게 된 것으로서, 아직 학생들과 알게 된 지 2~3일 밖에 안 될 때입니다. 이 짧은 2,3일 동안에 학생들은 모씨의 학문이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당한 이유가 있어서 경멸을 받았다면 학생의 행위를 참작해줄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하등의 원인도 없이 신임선생을 조롱하는 따위의 경박한 학생들을 관대하게 처분해서는 학교의 위신도 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의 정신은 단지 학문을 가르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고상하고 정직한 무사적인 기풍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야비하고 경박하고 폭력적인 나쁜 버릇을 없애는 데 있다고 봅니다. 만일 반감이 두렵다, 소동이 확대된다 하는 따위의 고지식한 태도를 취하는 날에는, 이런 나쁜 풍습은 언제 시정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와 같은 나쁜 풍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것 이고, 이것을 못 본 체하려면 처음부터 교사가 되지 않는 편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기숙생 일동을 엄벌에 처하는 동시에 당해 교사 앞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도록 하는 것이 지당한 조치인줄 압니다."

私は教頭及びその他諸君のお説には全然 不同意であります。といふものはこの事件はどの點から見ても、五十名の寄宿生が新來の教師某氏を輕侮してこれを醧弄しようとした所爲とより外には認められんのであります。教頭はその源因を教師の人物いかんにお求めになるやうでありますが失禮ながらそれは失言かと思ひます。某氏が宿直にあたられたのは着後早々の事で、まだ生徒に接せられてから二十日に滿たぬ頃であります。この短かい二十日間において生徒は君の學問人物を評價し得る餘地がないのであります。輕侮されべき至當な理由があつて、輕侮を受けたのなら生徒の行爲に斟酌を加へる理由もありませうが、何らの源因もないのに新來の先生を愚弄するやうな輕薄な生徒を寛假しては學校の威信に關はる事と思ひます。教育の精神は單に學問を授けるばかりではない、高尚な、正直な、武士的な元氣を鼓吹すると 同時に、野鄙な、輕躁な、暴慢な惡風を掃蕩するにあると思ひます。もし反動が恐しいの、騷動が大きくなるのと姑息な事を云つた日にはこの弊風はいつ矯正出來るか知れません。かかる弊風を杜絶するためにこそ吾々はこの學校に職を奉じてゐるので、これを見逃がすくらゐなら始めから教師にならん方がいゝと思ひます。私は以上の理由で寄宿生一同を嚴罰に處する上に、當該教師の面前において公けに謝罪の意を表せしむるのを至當の所置とこころえます。(본문. p.114~115)

고슴도치의 교육의 정신은 위의 문장에서 보듯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서복례는 그의 확고한 교육정신은 학문을 배우고 형식적인 예를 갖추는 것 뿐 만아니라, 고사함과 정직, 그리고 무사적(武士的) 용기를 배우고, 나아가 폭력과 같은 행동을 방관적이고 안이(安易)한 태도로 취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37] 이처럼 소세키는 '고슴도치'선생의 인물을 통해 자신의 교육관을 표현하고 있는 것 이다. 이 작품에서 출세 지향적이고 이기주의자 '알랑쇠(野だいこ)'의 별명을 가진 요시가와(吉川)는 틀에 박하니 예술가인 미술교사로, 홋타(掘田)와 도련님과는 반대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상사로부터의 알랑거림과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위해서 교감과 교장의 비위를 맞춘다. 그래서 그런지 알랑쇠라는 별명이 더욱더 잘 어울린다. 그의 알랑거림과 아첨하는 모습은 군데군데 드러나 있다.

'요시가와'군이라 함은 그 '알랑쇠' 미술선생을 말하는 것인데, 무슨 생각에선지 몰라서 '빨간셔츠'의 집을 아침 저녁으로 출입하여 어디든지 따라다닌다. 마치 동료가 아니고 신하와 주인 같았다.

吉川君というのは画学の教師でれいの野だいこのことだ。この野だは、どういうつもりだ

37) 서복례,『夏目漱石의 作品속에 나타난 敎師像 考察 :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도련님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p.47 인용

か、赤シャツのうちへ朝夕出入りして、どこへでも隨行して行く。まるで同じ仲間じゃない。主人と家来みたようだ。(본문. p. 82)

“해변가에 저녁 노을이 끼어 자줏빛이 되었군요. 좋은 경치야. 여, ‘요시가와’군! 어떤가 저물가의 경치가?“하고 큰 소리로 ‘알랑쇠’를 불렀다.“과연 훌륭하십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림으로 그렸으면 좋겠는데, 애석합니다.” ‘알랑쇠’는 신이 나서 한바탕 떠들어 댄다.

濱の方はもやでセピヤ色になった。いい景色だ。おい、吉川君どうだい、あの浜の景色は……と,大きな聲を出して野だを呼んだ。なあるほどこりゃたいそう珍しいながめですね。時間があると写生するんだが、惜しいですね、このままにしておくのは。と、野だはおせじをいう。(본문. p.96~97)

‘알랑쇠’는 도련님과 같은 도쿄출신의 에도코(江戸っ子)이지만, 출세를 위해서 상사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첨과 알랑거림이 다분한 면을 볼 수 있다.

이로써, 현실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現在 우리들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소세키는 ‘고슴도치’에게서 자신의 교육이념을 표현하고 있고, ‘알랑쇠’에게는 도쿄출신 다운 ‘게스(げす)’ 라는 말을 쓰는 점, ‘빨간셔츠’에게서는 당시 하이쿠(俳句)에 빠져 있었던 모습과 여성적 경향을, ‘가지꼬투리’에게서는 위 무력증으로 고생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세키는 인간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을 재미있고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외 인물들을 통하여 교육자적 모습과 비 교육자적 모습을 도련님, 고슴도치, 가치꼬투리, 알랑쇠, 빨간셔츠를 설정해서 사회 순응자는 살아남고 부 적응자는 사회의 바깥테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하면서 정의로 똘똘 뭉친 ‘도련님’을 통해 소세키는 교사의 자질로 정직과 덕망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이란 정직하고 누구보다 의리가 있으며 도의심을 갖은 도련님이나 고슴도치, 가지꼬투리 같은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는 그날 바르고 참된 교육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련님』에 등장하는 교사들의 교육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교장과 알랑쇠, 그리고 빨간셔츠인 교감은 ‘악(惡)’의 선두주자로 권력과 금전을 추구하고 가지꼬투리, 홋타, 도련님은 ‘선(善)’을 추구하는 인물로서 의리 있고 정당함을 추구하는 교사상을 자아냈다. 하지만, ‘도련님’처럼 교육현장과 수업하는 모습들이 정확

히 묘사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 교사로서의 자질은 잘 아 수 없지만 교사로서의 자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생들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서구화가 물밀 듯이 쏟아지는 메이지 시대에 작가 소세키는 지육(智育)편중의 교육이 아닌, 덕육(德育)존중의 교육을 강조함으로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권모술수를 비판[38]하고 있다.

38) 前出서복례 석사 논문에 의한다, pp.

V. 結 論

지금까지 『도련님』의 영향을 주었던 메이지 시대의 교육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교육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작가 소세키가 살았던 메이지 시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시대에 반영된 교육현실과 학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조명하였다. 메이지 시대는 급속히 서구문명을 흡수하는 과정 중 많은 이변을 맞이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메이지 시대 속 교육정책에 관하여 많은 비중을 실어서 그 당시의 문제점과 현실을 표출했다. 메이지 시대의 교육정책은 서구의 실용주의와 부국강병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적으로 서구문명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이익추구 성향은 당연시 되고, 금전과 권력 그리고 출세지향이 우선시 되어 버린 메이지 시대 이후, 사회에서는 조직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인간 유형, 출세를 보장받기 위해서 강한자 에게 아첨하며 자신의 이익추구를 지향하는 인간유형, 표면으로는 선량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약한자를 밀어내는 계략을 도모하는 위선적이고 간사한 인간들이 성공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소세키는 자신이 직접 쓴「중학개량책」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교육관이 확실하게 표출되어 있으며, '교육은 국가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학습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잠재 능력을 계발하며 타고난 덕성을 함양하는 것 '이라는 그의 교육관은 작품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개인의 존엄성이 경시되고, 지육(智育)편중의 교육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덕육(德育)은 '국가에 충성심과 상급자에 대한 복종심'을 기르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인격자보다 유능한 자를 대우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금전을 탐욕 하는 이기주의 세태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비판함고 동시에 교육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실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음을 본다.

소세키는 자신의 체험과 단순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대한 비판을 풍자와 해학의 묘미로 그려내기도 한다. 소세키는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 인간교육 즉

덕육을 지향하는 교육자로서, 자신이 부족한 교육관을 한없이 반성하고 느끼고 있었던 교육자로서, 이는 소세키가 집필한 중학개량책을 통해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소세키의 중학개량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점은 바로 덕육교육을 중요시하되,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엄격함을 강조한 점을 알 수 있다. 자신의 10여년간의 교육자 생활 동안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다. 자신과 맞지 않는 교직생활에서 많은 회의감을 느끼고, 나아가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소세키는 교직생활을 사임하고 작가의 길로 들어서서, 학교 소설 『도련님』을 집필하였다.

'도련님'을 살펴보면, 소세키 자신을 나타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작가 소세키가 교직생활에 부적응했던 것처럼 주인공 '도련님'과 같은 양상을 지녔다. 교직생활의 기간은 다를지언정 교직을 떠난 점도 역시 '도련님'과 같다.

자신이 겪은 교사생활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많은 교훈 점을 안겨준 『도련님』은 우리 현실사회를 대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근대화라고 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을 작품 속에서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그린 소세키의 작품을 통해 우리 현대인들에게 반영된 사회속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초임교사인 '도련님'이 학교를 부임 받아 옴으로써, 금전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당시의 교사들의 급여제도가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이라면 금전이라는 바탕 하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금전 앞에선 약해지기 마련이다. 당시 시대는 금전권력이 강한 시대였으므로, 교사들 간의 금전박탈은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도련님'은 알랑쇠처럼 아첨하는 인물이 되지 못한다. 처음 학교에 부임받아 교장실로 들어서 교장선생님의 교육의 정신을 듣는 도중, 「임명장을 반환하겠습니다.」 라는 대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대쪽같이 곧고 융통성 없는 인물이다. 그와 반면, 교장선생님과 빨간셔츠 그리고 알랑쇠는 메이지시대를 대표할 만한 현실적 인물들이다. 교장이란 자는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영속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둥, 초임교사에게 교육의 정신에 대해서도 교과서적인 말을 되 내이면서 교장으로서 해야 할 형식을 유지함으로서 끝까지 교직생활을

영위한다.

빨간셔츠 인 교감선생은 동료교사를 전출시키기 위해서 알랑쇠와 함께 계략을 도모하고, 약혼자 마돈나 마져도 빼앗는 부도덕한 인물이다. 문학사라는 신분을 내세우면서 제3자의 눈으로서 보면 도덕적이고 성품이 정갈한 사람으로 보여 지지만, 실상은 야비하고 부도덕하며 권력을 과시하는 인물이다. 알랑쇠는 자신의 이익을 부양하기 위해서 강한자 에게 굽실거리며 아첨하는 인물이다. 이 세 사람을 보면 메이지 유신 후, 변해버린 시대상을 잘 읽어버린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악한 존재이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세속에 물든 올바르지 못한 이들을 통해 소세키는 당시 교육현장과 시대를 비판 했음을 알 수 있다.

지식이라 하는 것은 불면하는 것이며, 사고방식이 변함으로써 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편중의 교육에 문제점을 소세키는 간파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세키는 덕육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신념과 자신의 교육자적 자질을 잊지 않고 교육에 임하는 순간 진정한 교육자가 될 수 있다는 그의 이상적인 교육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권력과 금전에 치우지지 않고, 교육자의 사명의식과 소신대로 임한다면 학생들과의 소통에서도 문제없는 교육현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全 集 >

夏目漱石, 『漱石全集第十六劵』,岩波書店 , 1995

夏目漱石, 『漱石全集第十七劵』,岩波書店 , 1995

夏目漱石, 『漱石全集第ニ十六劵』,岩波書店,1995

< 單行本 >

夏目漱石,『私の個人主義』, 講談社, 2010

夏目漱石,『坊っちゃん』, 講談社 , 2004

三好行雄, 『夏目漱石事典(39)』, 學燈社 , 1990

平岡敏夫, 『夏目漱石Ⅰ』株式会社国書刊行會,1989

권혁건 , 『나쓰메 소세키 문학세계』,學士院, 1994.

정지훈, 『도련님·하룻밤』,하서출판사, 2004

김정훈, 『나쓰메소세키 나의개인주의 외』, 책세상, 2007

조영석, 『나쓰메 소세키 한눈팔기』, 문학동네, 2010

< 論 文 >

朴武熙,『夏目漱石』에 나타난 先生像,의 小考, 西京大學校文集 제23집, 1995

홍승희, 『夏目漱石의 작품 속에 나타난 교사상』,석사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1996

조영석, 나쓰메 소세키의 시대 의식론 -초기작품을 중심으로-, 조선대 외국문화연구,1997

김광수, 『夏目漱石와 그의 작품에 나타난 지식인상』,박사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2

김윤경,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 속에 나타난 교사상 고찰 :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봇짱, 산시로 를 중심으로』, 석사논문, 2004

손순옥, 소세키 작품에 나타난 교사상, 중앙대학교논집 제30호, 2006
김대성, 『夏目漱石의 敎育觀 硏究 : 도련님, 중학개량책, 우견수칙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서복례,『夏目漱石의 作品속에 나타난 敎師像 考察: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도련님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